

在日大韓基督敎會
宣敎70年을 향한 標語

1. 敎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12月15日(月) <1975年> 第317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發行人 崔京植・編集人 金君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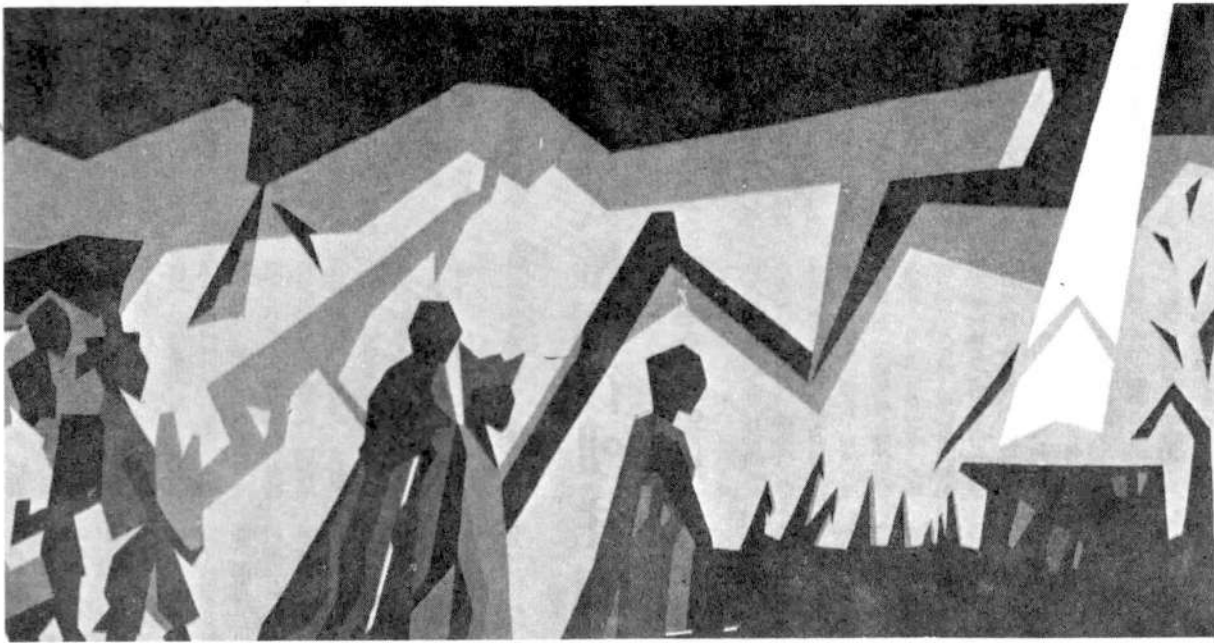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추하

성탄



죄에서 해방하러 오신 예수

金元治總會長の 크리스마스메시지



기도를 받아들이고 하시면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죄
를 고백할 때에 그죄인 세리
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의
인의 인정으로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오신것은 이러한 죄
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위
하여 오셨다. 우리도 우리 마

함께하여 구주 오셨다.
크리스마스에는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주님께서
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
르러 왔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
기를 「바리새와 사람의 자기민
음의 자랑과 의인인척한 그 기
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의

음에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자.
일년 마지막 때에 우리는우
리의 때를 심정으로서는 도
저히 주를 맞이할수 없다. 주
님께서도 천도의 첫음성에 외
치신 소리는 「때가 찼고 하나
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
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다.
요즘 우리는 시대풍조에 따
라 다른 사람의 책임을 추궁
하면서 자기 죄는 돌보지도아
니하는 무책임한 시대에 살고
있기때문에 우리의 심정도 그
러한 시대풍조에 물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시주
님의 말씀에 따라 상고하여보
자.
어찌하여 내가 형제의 눈속
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
하느냐, 하고 우리 스스로 자
기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시
킨것이다.
주님이 오신것에 대하여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하고 찬
양하는것도 죄지은 악한 인간
을 살리기위하여서 죄사함의축
복을 허락하신것이다.
죄짓지 말라, 죄지으면 지옥
간다, 하면 죄짓지 아니할수없
는 인간이 참얼마나 비참하겠
는가. 그러나 주께서는 이 죄
에서의 해방을 선언하신것이다.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주께 사
람을 보내었을때 주께서 하신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
였다. 그것은 맹인이 보고 절
독발이가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
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사
실이였다.
주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셨
다는것은 이일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전세계만민이 그 생
활의 고저가 그 지위의 귀천에
관계없이 다 주께서 그 죄의해
방으로 오는 기쁨과 그 놓여
진 아름다운 환경속에서의 해방
을 선언하신것이다.
누구를 규탄하고 누구를 못
살게군, 그런 편변된 주가 아
니였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에 이 주를 우리 마음에 맞이
하여 축복을 받아 참기쁨의
의 찬송을 부르자.

関東地方서는 連合祝賀会로

関東地方會主催 連合聖誕祝
賀會가 지난 14日 東京敎會에
서 関東地方 산하 敎회 교

우가 많이 참석한 가운데 엄
숙히 거행되었다.
李仁夏牧師의 司會로李大
京牧師의 開會기도 李永欽長
老의 성경朗誦 吳世京長老의
指揮下 連合聖歌隊의 성가예
이어 金聖河長老 姜榮一牧師
金成元青年會長 李錦容婦人會
代表등의 기도, 吳世京長老의
獨唱이 있은후 吳允台牧師의
「救世主를 기다리는者들」이
란 설교가 있었다.
이성탄절 連合예배의 특별
헌금은 金哲顯神學生敎出委員
會에 보내기로 하였다.
제二部는 친목회를 가졌으
며 贈品을 모르는 환담속에
서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生野區民크리스마스祝賀會의 光景

各地서聖誕祝賀會 生野區民크리스마스

KCC등主催로開催

大阪市生野區民 크리스마스
祝賀會가 지난 13日 大阪北
鶴橋小學校에서 區民約千名이
參加한 가운데 盛大히 거행
되었다.
主催는 生野區民크리스마스
實行委員會(KCC, 關西韓國
YMCA, 大阪敎會, 布施敎會,
日本基督教團生野敎會)이며,
금년이 네번째의 축하회이다.

祝聖誕

在日大韓敎會總基
督

總會長	金元	副會長	黃義	書記	金權	副書記	金信	傳道局長	金德	教育局長	洪永	社會局長	金君	財政局長	金光	監査	金晚	人事局長	金重	試取委員長	吳元	憲法委員長	崔昌	治理委員長	金元	總務	崔京	KCC館長	俞錫	RAIK所長	李仁
會長	金治	會長	義生	記	權泰	記	信煥	局長	德成	局長	永其	局長	君植	局長	光洙	査	晚洙	局長	元治	委員長	吳台	委員長	崔華	委員長	金治	務	崔植	館長	俞瀟	所長	李夏

写真으로 보는 75년의 주요한 일들



카나다 자매교회 방문단의 환영



朴君 日立裁判勝利 1周年記念集会



콘박사를 강사로 春季指導者研修會 開催



아리랑합창단 歸日報告會



第31回총회 열려 旧新任員 交替



教役者・長老・婦人会・青年会連合研修会

在美韓人教會의 展望

金桂昊

오늘날 사람은 어떠한 세계에 살든간에 對話가 必要하다. 人間に 生きたる 사람과의 對話를 通하여 相互間の理解와 協力關係를 가지고, 보다よい한 結果를 맺게 된다. 여기에서 美韓人教會를 紹介하여, 在日 韓人教會와의 對話의 契機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고 동시에 在美韓國人敎會도 시작되었다. 一九〇三年에서 一九〇五年 사이에 韓國人農民七二六二名이 하와이에 移民해 왔다. 이 移民中 四百名이 信者였다. 이들은 一八八五年 韓國에 프로테스탄트의 宣敎에 의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된 젊은 信者들이기에 西歐文明社會에 와서도 如前히基督敎의 福音을 証言했다. 10年 동안에 그들은 31個處의 敎會堂과 传道所를 마련했고 敎人數도 增加되어 2千8百名이 넘었다. 따라서 이들은

美韓新聞の 安ケテのハム
在美韓人中 26%가 韓人教會
에 出席, 18%는 宗教에 関心이
없고, 5%는 美人教會에
%는 때때로 出席하는 카렌다
信者이며, 34%가 거리 및 환경
의 不便으로 教會에 參와 하
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海外韓國新聞에 依하면 在
美韓人教會가 72년에는 99個
處였는데 74년에는 百64個處
로 増加되었었다. 그러나 一統
計는 不充分한 것으로 事實은
約二百餘個處가 넘는다. 一統
計에는 미시간州에 2個教會
가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事
實은 8個處이고 내가 사는
펜티키州는 1個의 教會도 없
는 것으로 되었는데 2個處의
教會가 있다. 이러한 視點에서
생각하면 約二百餘處의 教會
數가 넘는다. 教會의 増加에 따
라서 敎人數도 역시 増加되
어 갔다.

데트로이트의 韓人教會는 지

年三年間에 72名에게 洗礼을
 베풀고 百24名의 유아에게유
 아세례를주었다. 이와같이 한
 教會의 例만봐도 敎人數가 增
 加되어가는데 在美韓人教會의
 信者數의 增加는 相當한 數
 字로 나타나게될것이다.
 在美韓人教會가 이렇게 비
 약적으로 成長해간 이유는 무
 연가, 그理由는 여러가지가 있
 겠지만 우선세가지점만 드러
 보자.
 첫째 美國社會가 基督敎의
 社會이다. 어디가나 높은敎會
 黨이서있다. 남마다 基督敎의
 福音音敎의 放送을듣고 季節
 마다 基督敎의 祝祭가있고, 學
 學校, 會社, 職場에가도 信者
 들과 만나게된다.
 이社會의 基督敎의 분위기
 가 美國白人과 黑人사이에게
 여고독한마음을 다룬 東洋
 사람으로하여금 제어그리스
 도를 찾게하는것이아니겠는가

就職差別で抗議

共闘会議結成し、電々公社に

의殖民地로 合併하고 東洋사람의 美國移民이 中止되어第2次世界大戰終戰까지 繼續되었다. 一九四五年 韓國解放과 더불어 美國이 환관하게 韓國에 參與하게되면서 韓國人의 第二次的인 移民이 再開되었다. 特別히 美國留學의 길 이 열리어서 一九五二年에서

一九七三年까지 一萬二千三百七〇名の 留學生이 들어왔고 이들중에 二千九百六十八名만이 帰國하고 남은지 60%의 유학생은 그대로移民으로 轉換되어갔다. 따라서 새로운移民이 増加되어 오늘날 在美韓國人人口는 約二十萬名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移民과 더불어 基督敎의 宣敎의 힘이 強力하게 퍼져갔다. 一九七四年 1月 19日 在

在日韓国人生徒三名（大阪府立淀川工業高校生二名、大阪市立工芸高校生一名）が、日本電信電公社近畿電気通信局の技術職員採用試験に応募書類を提出したところ、「国家公務員に適用する人事院規則を準用する」という理由で書類を返送し、受験をもせなかつた。

この採用試験すら拒否した電電公社の民族差別に抗議し、KCCを中心に14団体が、電電公社就職差別撤廃共闘会議を結成した。

實を指適し、その返答をせまつた。

在日韓国人の立場からの申入れ書の中で「在日韓国人の存在が日本の植民地支配の所産である」という歴史性と、今日の平和と民主主義社会において、就職の門戸を閉ざすことは、世界人権宣言や、日本国憲法に相反する事実からしても、貴公社の今回の処置は全く不合理であるばかりでなく、重大な民族に対する偏見と差別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

住所変更

●武庫川教会
尼崎市南武庫之荘 12 | 12 | 18
●朴米雄講師
横須賀市公郷町一—51—4 鈴
木 荘

祝
聖
誕

在日大韓基督教
婦人會全國聯合會

規則局長	財政局長	青年局長	教育局長	社會局長	宣教局長	副會計	會計	副書記	書記	副會長	會長
李長	南長	李長	韓長	李長	慶長	金計	金計	權記	吳記	金長	權長
玉	周	文	鳳	錦	惠	秀	玉	玉	仙	主	仁
洙	也	子	愛	容	重	泰	札	華	妣	日	淑

在日大韓基督教
青年会全国協議会

[illegible]

153 173

12 行 + 1 行 (13 行)